

광주 대인예술시장 시즌제 운영...올해 20만명 방문

亞 문화예술 거점 활성화 프로그램 5월말부터 12차례 시즌 1~4 운영 작가레지던시·한평갤러리 등 호응 "콘텐츠 개발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광주의 대표적 야시장인 대인예술시장이 시즌제를 도입해 특색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인예술시장은 지난 5월25일부터 11월16일까지 총 12차례 시즌 1~4로 운영됐는데 방문객은 20만명에 달했다.

대인예술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예술 거점 활성화 프로그램'의 하나다.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 광주 원도심과 대인시장의 유동인구 증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는 문화예술콘텐츠 사업이다.

대인예술시장은 전국대표 '예술관광형 시장' 사업으로 남도달밤야시장, 지역작가 레지던시 지원, 한평갤러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먹거리·길거리·볼거리가 있는 축제의 장을 선사했다.

올해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 시즌제로 운영됐다.

시즌마다 한국형 호러체험, Y2K 레트

로, 한가위 전통놀이 등 특색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매회 1만5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대인예술시장을 찾았다. 전통시장만의 추억 먹거리와 버스킹 공연, 가족 방문객을 위한 도예체험, 보드게임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겼다.

10명의 지역작가들에게 창작공간과 창작 활동을 지원해 주는 레지던시 지원사업도 성과로 이어졌다.

레지던시 입주 김소녀 작가는 제3회 대한민국디지털문화대전에서 '당신의 달팽이 친구, 아르보'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임송은 작가(활동명 수우림)는 광주미술협회가 추진한 '광주미술 해외 갤러리 초청전시'에 참여해 미국 패리스 코 파인아

트 갤러리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레지던시 작가와 최근 각광받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한평갤러리'는 체험형 아트 전시회 '인사이드 갤러리', 레지던시 작가전 '휴, 생명을 품다', 지엔(GN) 스튜디오 '피규어전', 드로잉작가 시온의 '리리랜드, 4번째 이야기', 정상운 작가의 '주관적 흔적선' 등 무료 전시회를 총 7차례 열어 예술형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10월과 11월 전시에 참여한 시온 작가와 정상운 작가는 남도달밤야시장 현장에서 드로잉 라이브를 선보여 야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매

력 '로컬100선'에 선정된 대인예술시장은 시즌3에 해외 관광객 대상으로 '전통시장 투어 도슨트'를 무료 운영했다. 또 광주비엔날레와 야시장을 결합한 상품을 국내 여행 플랫폼에서 선보여 지역 내 문화행사 간 협업과 공동 마케팅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문화예술, 관광체험, 먹거리로 시민에게 즐거움과 휴식, 감동을 준 올해 대인예술시장이 성공리에 마치고 됐다"며 "내년에는 광주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성장하는 대인예술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인기

지질·생태교육 1만3000명 참여

광주시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질공원 동행해설, 지오스쿨 등 교육프로그램이 사람들로부터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광주시는 올 한해 중심사지구 지질공원센터와 광주호호수생태원, 시립수목원 등에서 14개의 지질·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1년여간 총 1만3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세계지질공원의 지구과학적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맞춰 열리는 지오스쿨은 지질공원센터에서 이론과 실습을 하는 지질학 심화학습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 6세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오레포트쇼츠는 무등산 중심사지구 일대에서 지질명소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현장교육으로 진행된다.

화순 서유리 공동화석지에서 진행되는 '나도 고생물학자' 프로그램에도 발걸음

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크기의 육식공룡 보행렬(일렬로 놓인 발자국) 화석을 직접 살펴 볼 수 있고, 공룡이 달릴 때 발생하는 가속도에 대한 연구 결과 등 고생물학자들의 현장연구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지질공원 동행해설'은 지질공원해설사와 함께 서석대·입석대·광석대·덕산너덜·장불재 등 지질명소를 동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방문객들은 지질공원 해설사들로부터 지질학적 가치, 역사문화 명소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보고 느끼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밖에 지질명소 꾸미기, 지질도 퍼즐 맞추기, 내가 만드는 땅지우개, 지질명소 명칭 한자쓰기, 도전! 지오골든벨, 지질시대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지질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 광주호 호수생태원과 시립수목원에서는 '호수생태원에서 놀자', '똑똑한 로제트', '수목원에서 놀자', '환경 갤러리도 사이클' 등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무등산권지질공원 누리집(<https://geopark.gwangju.go.kr>)에서 온라인 예약으로 가능하다. 노병하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GCC 사관학교 1기 수료식 보고 있다. ▶관련기사 1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열린 'GCC사관학교 제1기 수료식'에 참석해 교육생 성과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1면

전남도, 수험생 관광 체험상품 '반값 이벤트'

전남관광플랫폼 연계 할인 혜택 목포 케이블카강진 짚트랙 등 4종

전남도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위해 전남관광플랫폼 앱과 연계해 대표 관광 체험상품 4종을 반값으로 제공하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시험 준비로 지친 수험생에게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체험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 대상 체험상품은 △목포의 탁

트인 바다와 다도해 풍경을 공중에서 감상할 수 있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여수 녹테마레 △대나무 숲과 빛의 조화로 독특한 야간 체험을 선사하는 담양 달라이트 △자연 속에서 긴장감 넘치는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강진 짚트랙 등이다. 이들 체험상품은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 관광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할인은 전남관광플랫폼 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수험표 확인은 현장에서 진행된다. 이벤트는 한정 수

량으로 진행되는만큼 조기 마감 가능성도 있다.

주순전 전남도관광체육국장은 "수능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한 수험생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전남관광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6일 무안 봉불사에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오감 명상, 감정 상담, 에니어그램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마음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재난응급의료 훈련으로 역량 강화

화재발생 상황 가정 환자 이송 등

전남도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 주관으로 19일 성기롤로병원에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 응급의료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소방,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인근 화재발생이라는 상황을 가정해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에 따른 재난응급의료체계 이론과 사상자 분류, 응급처치, 환자 이송 등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전남도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22개 보건소 신속대응반 90명 대상으로 요양병원 화재 발생 대비 재난응급훈련도 실시해 역량을 강화했다.

나소영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언제든지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 및 유관기관간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 지난 8월 '2024년 보건복지부 주관 재난 응급의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오지현 기자

전남자치경찰위, 맞춤형 치안활동 영상 제작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홍보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유튜브 '지키미(지키미) 밭차-고흥경찰서'편을 제작했다.

'지키미 밭차'는 농촌 현장을 지키는 분들에게 밭차를 선물로 보내며 따뜻한 한끼의 감사함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고흥경찰서편에서는 시골경찰학교, 드론합

동순찰대, 빠꾸기 문안순찰 등 다양한 자치치안 활동을 소개했다.

시골경찰학교는 주민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농기계 교통사고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판소리, 색소폰 연주, 노래교실 등 경찰관의 재능기부까지 더해져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흥경찰서, 고흥군청 등과 함께 운영 중인 드론합동순찰대의 활동 모습도 생생하게 전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올해 여름 치안 드론을 통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적인 순찰 활동을 하고, 드론에 부착된 스피커로 1일 1개 면씩 야외활동 자제 방송을 진행, 논밭에서 일하는 어르신의 온열질환 예방에 앞장서는 등 큰 효과를 거뒀다.

또한 고령화율이 4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흥지역 특성에 맞춰 경찰관이 마을 노인정과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안을 덜어주는 '빠꾸기 문안 순찰'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영상은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 으뜸전남튜브'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jnilbo

Kakao Talk: 전남일보
E-Mail: jebo@jnilbo.com

전남일보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